



초청 강연에서 참가자들은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

현장리포트

차기 HEIBAC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HEIBAC 수상자 동우회 결성 현장 이모저모

서로 안부 묻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시작

제 1회 하이박(HEIBAC)경연 대회 영광의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지난해 대회 주관사인 (주)서울하인즈가 수상자 상호간의 친목과 기술 교류, 차기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한 'HEIBAC 수상자 동우회 결성 대회'를 통해서였다.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숙리산 관광 호텔에서 수상자 및 심사 위원, 업계 원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대회 영광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먼저 23일 오후 1시 각 지역에서 도착한 수상자들은 삼삼오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어 숙소 배정을 마친 수상자들은 주최측이 준비한 T셔츠 유니폼으로 갈아 입고 행사장에 입장해 2시간 가량 초청 강사의 강연을 경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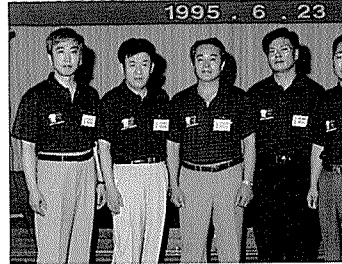
뒤이어 수상자들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지회별 분임 토의에 들어 갔다. 'HEIBAC 수상자 동우회' 결성의 골격을 세우기 위한 총 6장 16조의 정관 토의 및 서울·경기, 부산·대구, 광주·대전, 프랜차이즈 4개 지회의 지회장과 총무 선출을 위해서였다.



회장 및 4개 지회장 선출로 분위기 최고조에 다달아

분임 토의가 끝나고 속개된 이날 행사는 동우회 결성 선포와 동우회기 입장으로 본격적인 행사에 돌입해 회장 및 지회장 선출로 이어지면서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참가자의 추천을 거쳐 거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이 자리에서 각 후보자들은 모임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해 선거전을 방불케 했으며 회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곧이어 거수 투표 결과 초대 회장에 서울 잔다크제과의 안승률씨가 앞서 분임 토의에 의해 서울·경기 지회장에 수원 강동베이커리 장명환씨, 부산·대구 지회장에 대구제과기술학원 배익수씨, 광주·대전 지회장에 천안 뉴실크로드제과 정관수씨, 프랜차이즈 지회장에 고려당의 박광준씨가 각각 선출됐으며, 안승률 초대 회장이 이 수상자 동우회 발전을 위해 힘차게 대회를 흔드는 순간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 J.K 존슨 사장은 동우회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 회장 및 4개 지회장. 좌로부터 정관수, 장명환, 안승률, 배익수, 박광준씨

엄숙한 한마음 다짐 촛불 행사로 동우회 발전 기원

이후 수상자 동우회 고문 추대에 이어 저녁 식사 후 마련된 여흥 순서는 이날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코메디언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펼쳐진 지회별 장기 자랑에서 참가자들은 가요경연 대회를 통해 자신의 솜씨를 뽐냈으며, 디스코 경연, 각종 게임으로 이어져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IBAC 수상자 동우회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참가자들이 연단에 마련된 점화대에 한사람씩 촛불을 점화하는 '한마음 다짐의 불' 촛불 의식을 엄숙한 가운데 거행함으로써 짧지만 의미있는 이번 행사의 막을 내렸다. [2]